

미래 바꿀 'AI 인재' 도전하세요

광주 AI사관학교, 다음달까지 교육생 전국단위 330명 모집 18~39세 교육비 전액 무료...1~4기 졸업생 취·창업률 64%

광주 AI사관학교는 인재육성 교육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은 AI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을 이어간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사관학교는 다음 달 29일까지 제5기 교육생 330명을 모집한다. AI사관학교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AI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자(취·창업 준비생)로 학력, 전공, 성적, 거주지 등 조건 없이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온라인 기초·심화 과정 이수, 역량 테스트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AI사관학교 입학 신청은 인공지능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5기 교육은 10개월간 AI 이론·실습 교육 과정, 프로젝트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생에게는 교통, 중식, 숙박, 교재, 학습 콘텐츠뿐 아니라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 전문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5기 교육에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트랙 내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챗GPT) 과목을 추가하는 등 최신 기술 동향에 맞춘 특화 커리큘럼도 신설된다.

'인공지능(AI) 인재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AI사관학교는 2020년 첫 모집 이후 4년간 탄탄한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통해 총 916명

의 우수 인력을 배출했다.

1~3기 졸업생 중 64%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4기(2023년)에서는 학생 14명이 졸업 전 조기 취업하는 등 우수한 취·창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끝장개발대회(해커톤), 공모전 우승 등 AI 관련 대회에서 탁월한 수상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성과 덕분에 4기까지 교육생 1020명 모집에 3205명이 지원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3~4기 교육생 가운데 비전공자가 70%에 달할 만큼 비전공자의 역량 강화에도 특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승 광주 AI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인공지능사관학교는 비전공자들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게 기초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전세사기 피해 127건 공식 인정

시, 이자·월세·이사비 지원...오늘부터 피해자 접수

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돕기 위한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일단 사기 피해 접수 191건 중 127건을 공식 피해건수로 인정한 상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8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광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91건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191건 중 전세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은 159건을 심의하고, 127건(79.9%)을 공식 피해로 인정했다. 나머지 32건은 광주시 추가 조사 또는 국토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식 피해로 인정된 127건 피해자는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민간 주택 입주 시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비담보 전세자금 금리 1.2~3.0% 전액 지원한다.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했을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 실비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도 실비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 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이터 분석해 안전 취약도로 사고 예방

광주시, 상습 결빙·적설 취약지 등 18곳 추출해 자치구 공유

광주시는 "겨울철 결빙 등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 취약도로 18곳을 선정하고, 시각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동절기(12월~이듬해 3월) 공공·민간 데이터 6종을 분석하고, 결빙 사고와 상습 결빙·적설 취약, 도시철도 공사 구간 복공판 설치, 유동 인구 등 현황을 고려한 도로 안전 취약지 종합지수를 산출해 서구와 광산구 6곳씩, 북구 4곳, 동구와 남구 1곳씩 취약 도로를 추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구 학동(남광주 고가 부근), 서구 백진동(서창교차로 부근), 치평동(롯데마트 맥스 부근), 유촌동(무진대로 초입 부근), 상촌동(상일여고 부근), 유덕동(광산대교 부근), 화정2동(요동터널 부근), 남구 백운2동(동아병원 부

근), 북구 운암2동 2곳(동은 고가·경신여고 부근), 신안동(전남대 치과병원 부근), 양산동(한전재무 자재센터 부근), 광산구 오운동(평림교 부근), 삼도동(평림교 부근), 어룡동(송산대교 부근), 우산동(극락교 부근), 첨단1동(광주과기원 축구장 부근), 첨단2동(첨단중앙로 부근)이다.

광주시는 겨울철 안전 취약 도로 18곳을 100m 단위 격자 지도 위에 표시하는 시각화 작업을 하고, 시 자연재난과·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자치구 등과 공유해 교통사고 예방 작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고품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중앙정부·관계기관과도 데이터 협업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5일 오후 서구 치평동 기본종합극장에서 열린 '시의회와 소통강화를 위한 문화공감 행사'에 참석해 정무창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시의회, 문화로 새해 첫 소통

연극 관람하며 협력 다짐...영산강 수변길 걷기 후 7개월만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연극을 함께 관람하며 갑진년 새해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나섰다.

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서구 치평동 '기본 좋은 극장'에서 강기정 시장과 강 부 공무원,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해 문화 공감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강 시장이 정 의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영산강 수변 길 한마루 걷기 후 7개월 만에 두 기관이 합

개하는 나들이 행사였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취향과 생각이 다른 남녀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라면'을 공동 관람했는데, 기관의 역할과 성격이 다른 시와 시의회가 토론과 협력을 통해 광주 발전의 동반자로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연극 내용과 비슷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는게 시와 시의회의 설명이다.

연극 관람에 앞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갑진년, 우

리 값지게 함께 해움(龍)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더 살기 좋은, 더 즐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힘을 더하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객석과 무대가 호흡하고, 관객끼리도 보는 내내 함께 웃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튼튼한 파트너인 시의회와 새해에도 시민 행복을 위해 원팀이 돼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광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의 자세로 항상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 삼아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예타 조사 선정

완도 청해진유적지 일원 1441억 투입... 전남도, 조기 통과 총력

완도에 들어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사업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예타 조기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국비 144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면 완도 청해진유적지 일원에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서남해안권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을 위해 정부·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재도전 끝에 최종 통과됐다.

이번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마침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 도에 오르게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문을 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완도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해양수산물문화 거점으로서 글로벌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 선정 등 사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기간은 기초자료 수집·연구,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거쳐 통상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소요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